병해충 방제 총력… "과수 · 채소 지킨다"

농진청, 과수화상병 · 토마토뿔나방 · 씨스트선충 방제 점검… 농가 지원 대책 마련

농촌진흥청이 사과·배 과수원과 토마토 농가 등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3일 오후,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국가 관리 규제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의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이미 받은 과수화상병 약제나 보유 방제기가 소실된 농가에 추가로 약제를 배부하거나 방제기를 무상 임대하는 등 대책 마련도 살폈다.

농촌진흥청이 사과·배 과수원과 토마토 농가 등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 청장은 개화기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시기로 접어든 만큼 각 농가가 '과수화상병 예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반드시 방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인 이번 달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속한 진단·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마토뿔나방·씨스트선충 방제용 물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방제 이행 여부를 재차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제 완료 이후에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조기 대응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권 청장은 "이미 발생한 병해충은 방제가 매우 어렵고, 피해가 급속히 확산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제가 필수적이다."라며 "주기적인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발생 시 빠르게 방제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찰과 궤양 제거 등 사전 예방 조치를 한 결과, 현재(4월 2일 기준)까지 5개 시군, 80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위험주가 발견돼 68.3헥타르(ha)를 매몰했다. 개화 전 방제 약제 살포는 약 89% 완료했다. /오상근 기자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중국 청두서 열린 '전국당주상품교역회'에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905만 불 규모의 MOU와 현장계약 성과를 거뒀다.

중국 2선 청두서 K-푸드 인기 입증

전국당주상품교역회 한국관 운영, 905만 불 MOU · 계약 이어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전국당주상품교역회(CFDF)'에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905만 불 규모의 MOU와 현장계약 성과를 거뒀다.

1955년 시작돼 올해로 112회를 맞은 전국당주상품교역회는 중국 서부 내륙 최대 규모 식품박람회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등 52개국에서 2천여 개의 식품·주류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43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현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정부와 aT는 중국 2선 시장 개척을 위해 이번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통합한국관을 꾸렸다. 국내 수출기업 19개 사와 1개 지자체가 참가해 인삼, 음료, 주류, 스낵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전통주·홍삼', '커피-스낵류' 등 대표 제품을 묶은 페어링 시식 행사는 참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베이징에 위치한 수입식품 전문 유통매장 제니왕의 대표 손개룡씨는 "한국식품은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아 꾸준히 주목해왔다"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중국에서 통할만한 제품을 발견하고, 참가기업과 MOU까지 체결하게 돼 향후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T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중국 서부 내륙지역은 연안지역에 비해 한국식품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이라며, "중국 내륙 주요 도시까지 K-푸드 수출을 확대해 대한민국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aT, 14일까지 2025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14일까지 '2025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 박람회는 8월 필리핀 마닐라 워펙스(WOFEX) △9월 호주 시드니 파인푸드(FFA)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알(SIAL) 등 총 9개다. 정부와 aT는 다양한 K-푸드를 한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참가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통합한국관 부스 배정과 기본 장치 △전시 샘플 운송·통관비 △사전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의 오프라인 상담회 등을 지원해 박람회 참가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국내 농림축산식품 생산·수출기업이며,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사 국제식품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바이오진흥원, 지역 가공식품 DB 구축 · 교류회 개최

학교 · 공공급식 · 지역 가공업체, 상생의 첫걸음 내딛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이 지역 가공식품의 학교·공공급식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가공먹거리 DB 구축 및 교류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새학기를 맞아 지난 2일 남원시 농업인상생플랫폼(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교류회는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거나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학교급식 현장과 지역 가공업체가 서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자 따뜻한 관계의 시작이 되는 뜻깊은 만남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남원시 교류회에는 매일 아이들의 식판을 책임지는 학교 영양교사와 지역의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드는 가공업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산 가공식품에 대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공급기준과 현장의 애로사항 공유 등 서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올해에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5회의 교류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160여개 지역 가공업체의 정보를 수집해 학교·공공급식용 DB도 함께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학교·공공급식기관에 제공돼 지역 가공식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관계의 첫걸음인 올해 교류회는 지역 가공식품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식탁을 책임지는 동료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으로, 다음 교류회는 이번 달 8일(화) 군산 스테이호텔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이끄는 바이오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실행조직으로, 지역산 가공식품의 급식 연계를 위한 조사와 교류회 기획·운영을 맡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생산자와 수요자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지역 먹거리의 신뢰는 시작된다"며, "교류회를 통해 지역산 가공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소비 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알디에이 승용마 8개월간 방목

농촌진흥청은 '알디에이(RDA)승용마'를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제주도 중산간 지역 초지 약 247헥타르에서 방목 사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농촌진흥청이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 체형을 접목해 개량하여 육성하는 생활 승마용 말이다.

승마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도록 체고 145~150cm(36개월령) 수준을 목표로 개량 중이며, 검은색 계열(흑색, 흑백얼루기) 털색이 특징이다.

방목 사육은 축사 사육에 비해 말의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수치를 낮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해 이상 행동을 줄이는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환경에서 신선한 풀을 뜯고,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 등을 고르게 공급받아 균형 잡힌 영양 상태가 되도록 돕는다. 특히 말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심폐 기능도 강화된다.

또한, 말을 방목 사육하면 축사에서 관리할 때보다 알곡 사료 및 건초 급여량이 현저히 줄어 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 김남영 센터장은 "알디에이(RDA)승용마들이 한라산과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넓은 초지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살피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진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농가 모집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4월 한 달 동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되며, 농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도입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를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진원은 참여 농가에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등록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재 농업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총 16개 방법론이 등록되어 있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유사한 감축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량 1톤의 이산화탄소 당 약 1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농진원 누리집(www.koat.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전자우편,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말 농진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